

놀토 수산시장 대박...강진산단 투자유치 미흡

강진군 '10대 희망 프로젝트' 상반기 실적과 과제

**오감통 노래도시 조성, 지역민·관광객 맞춤형 공연 필요
푸소, 참여 인원·농가 늘어 농촌체험 프로그램 자리매김
초록민음 직거래지원센터 고객 13만명 확보 34억 매출**

강진의 10대 희망 프로젝트는 '돌아오는 강진', '살고 싶은 강진'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강진읍 군수가 지난해부터 직접 챙기는 핵심프로젝트다.

강진군이 최근 내놓은 '10대 프로젝트 상반기 추진상황'은 6개월간 10대 정책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강진 발전을 이끌어 나갈 미래 동력이 되기 위해 각 정책별로 개선할 문제점은 군 스스로 꼼꼼히 평가해 눈길을 끈다.

강진의 10대 희망 프로젝트는 ▲오감통 중심 노래도시 조성 ▲마량 놀토 수산시장 ▲감성여행 1번지 강진 조성 ▲초록민음 직거래지원센터 운영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 ▲공공기관 및 강진산단 투자유치 ▲강진 건강 10대 농·수·축산물 브랜드 육성 ▲세계모란공원, 석문공원 조성 ▲신마항 화물선 취항 ▲신뢰·친절·정경 군민 자부심 함양 등이다.

첫번째 프로젝트인 '노래도시 조성사업'의 경우 차질없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꼽혔다. 우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전남 음악창작소를 운영한다는 취지에 맞춰 홈페이지가 구축되고 지역 뮤지션·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용역에 착수하는 등 본격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매주 토요일 오후 14차례의 정기공연을 펼쳤고 4개 마을별로 5곡씩 무료음반 제작사업도 진행중이다. 군민들을 대상으로 음악대학이 운영되는가 하면, 매주 금요일 오후 열리는 DJ아카데미와 매주 토요일 오후 진행되는 라디오강진도 25차례나 방송되는 등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게 강진군 설명이다.

다만, 공연 문화 활성화 방안과 지역민·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공연을 기획

하는 등 마케팅 강화 방안은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마량놀토수산시장은 여태껏 17차례 운영되면서 올린 매출액이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찾은 여행객도 7만명에 이르는 게 강진군 분석이다.

강진군은 수산물 깜짝 할인판매(30%)도 지속적으로 펼치는 한편, 북북북 요리경연대회 등 특별 이벤트를 마련해 여행객들의 발길을 붙드는 대표 수산시장으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대도시 학생과 교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푸소'(FU-SO)체험도 새로운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푸소'는 필링(Feeling)은 울리고(U)스트레스(Stress)는 날려버리라(Off)라는 뜻으로, '떨어내시오'란 뜻의 전라도 방언이기도 하다. 올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7636명에 달한다. 푸소체험에 참여한 농가도 37개 농가로 늘어났다.

하지만 학생·공무원 참여가 늘어나면서 군 지원금이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과제다. 당장, 강진군은 올 해 참여농가에 지원할 식재료비와 프로그램 참여학생들 수송용 버스임차 비용 등으로 3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군 안팎에서는 이 때문에 민간 주도로 지속적인 활성화를 꾀하면서 비성수기 시즌에도 프로그램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수·축산물 직거래 지원센터인 초록민음 직거래지원센터도 지역 340개 농가가 등록했고 13만2000명의 고객을 확보한 데 이어 매출실적도 34억3900만원을 기록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일궈냈다



마량놀토수산시장



가우도 짐트랙

평가 받고 있다. '2017 소비자평가 NO. 1 브랜드대상' 농·특산물 부문에서는 대상도 수상했다.

강진군은 올 해 남은 기간 동안 160개 농가를 추가로 등록, 35억6000만원대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로,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로 했다.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방문자의 80%가 부잔교만 건너고 되돌아간다는 점과 비좁은 갈대숲 데크길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진군 성전면 송학리·명산리 일대 조성되는 강진산단 투자유치의 경우 지금까지 7건의 분양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69개 기업의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전남

최저 분양가와 군·도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산단이라는 장점 등을 적극 활용해 투자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게 군감대가 형성됐다.

강진 건강 10대 농·수·축산물 브랜드 육성 계획의 경우 10대 식품 간 연관성을 찾아 패키지 상품화하는 과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마항 화물선 취항은 진입도로가 비좁고 안내판 미설치, 어업 보상 협의 등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 화물선 취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쏟기로 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10대 희망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h@

영암 독천리 공공주택 120가구 들어선다

국토부 마을정비형 주택사업 선정...LH와 연내 협약

영암군이 국토교통부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사업지로 선정됐다.

21일 영암군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올해 사업지로 영암군 등 20개 지구를 선정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2015년에 도입된 지역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모델로, 매년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해 오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주변 시골 마을을 정비하는 것도 포함하는 게 특징이다.

20개 지구에서 공공임대 총 2240호가 공급되는데, 영암에서는 학산면 독천리 일대 공공주택 120호(국민 80, 영구 20, 행복 20)가 들어선다.

선정된 지역은 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곳으로 영암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협약을 연말까지 체결하고 내년에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영암=전봉희기자 jbh@

창립 1년 '장흥교수회' 지역발전 간담회

장흥지역 교수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장흥교수회는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장흥교수회' 창립 1주년을 맞아 간담회를 열고 장흥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장흥교수회는 지난해 장흥 출신 교수 41명으로 구성된 '고향사랑 군정자문단'으로, 장흥지역 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및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동학농민운동과 관련,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영화당까지 이르는 구간을 가칭 평화와 화해의 길이라는 의미가 담긴 '순대거리'로 조성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승일 작가는 이날 대규모 농민군이 참여한 최후, 최대의 격전지인 동학 석대들 전투와 영화당에 대한 가치와 설명, 눈길을 끌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장흥군 어린이집 아이들이 노인복지관 앞에서 봉숭아꽃을 따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 세대통합 '봉숭아 물들이기' 행사

장흥군은 최근 장흥군 노인복지관에서 어린이집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어울리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으로 봉숭아 물들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들이 노인복지관 앞 화단에서 봉숭아꽃을 따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봉숭아 물을 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흥읍 제일어린이집과 이시랑어린이집 아이들 60여명이 참여했다. 장흥군노인복지관은 조부모와 아동·

청소년이 함께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추진해오고 있다.

노인복지관측은 지난 5월 장흥교육지원청,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약을 맺고 300여명의 청소년들과 어르신들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노인들이 행복한 지역, 아동 청소년이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음악교육을 받고 있는 강진 지역민들. <강진군 제공>

오감통 음악창작소 교육 받은 주민들 '강진아리랑' 창작

강진 주민들이 '강진아리랑'이라는 퓨전음악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오감통 음악창작소에서 크로스오버 음악교육을 받은 지역주민들이 최근 퓨전음악 '강진아리랑'을 제작했다.

곡 작업에는 강진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영랑풍물패'와 직장인밴드 '천지창조'가 참여했다. 강진아리랑은 기존 리듬 대신 사물놀이와 밴드가 어우

러진 경쾌한 리듬으로 다산 정약용, 강진 가우도 등 지역의 관공자원을 가사에 담아냈다.

강진 주민들은 음악창작소에서 4주간 크로스오버 음악교육을 받고 강진아리랑을 창작했다.

주민들은 교육기간에 크로스오버 음악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우리에게 친숙한 국악과 다양한 서양음악의 협연 방법을 익혔다. 또 국악의 리듬에 멜로디와 하모니를 연결하는 작곡법도 배웠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h@

<h3>부안 숙박시설(모텔)</h3> <p>여름성수기 펜션 영업가능</p> <p>격포해수욕장, 대명리조트, 해변가 5분 토지 506평, 건물 430평(2개동 룸43개) 직접 운영시 월 수익 1500만원 가능</p> <p>감정가 16억 → 매매가 10억 (용 6억, 보 1억, 실투자 4억)</p> <p>직매 010-7384-7800</p>	<h3>수익성상가매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동 상가(6층) 45평 → 5,000만 리모델링 완비 → 즉시입주, 시비무료, 임대가능 매가 1억6천 → 9천(용5천) ◆ 상무지구 상가(4층) 45평 → 케이원상가 → (보2천, 월130만, 용7천) 매가 2억5천 → 1억9천 ◆ 상무지구 상가(6층) 19평 → 롯데마트 앞 → (보500만, 월40만, 용2,500만) 매가 1억 → 7천5백 ◆ 경기 평택시 토지 매입할부 → 전원주택, 농지 투자, 개발 → 평당 130만원 ◆ 서울 용산구 청파동상가 → 서울역 3분 → 상가 (오피스텔2개) 보600, 월70만 / 매가1억2천 <p>010-6670-9800</p>	<h3>영광주택</h3> <p>전원주택(영광읍)</p> <p>광주에서 30분</p> <p>즉시입주 가능</p> <p>내부개끗</p> <p>토지 151평</p> <p>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감정가 1억 1천</p> <p>매가 9천8백</p> <p>010-2699-5300</p>	<h3>경매 교육</h3> <p>① 기초실전반</p> <p>▶ 매주 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부터 ~ 실전 입찰까지</p> <p>② 실전투자반</p> <p>실전 교육듣고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강의</p> <p>③ 프리특별반</p> <p>경매 부동산 같이 하실분 서구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텔 (상무지구 한국은행, 현대아파트 사이)</p>
--	--	--	---